

3세대 해방신학의 신자유주의 비판을 통해 본 한국교회의 신앙실천 방안 연구: 브라질 해방신학자 성정모의 신학을 중심으로

박도웅 (배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1세대, 2세대 해방신학의 전개과정

1. 신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2. 신학과 교회의 만남 - 레오나르도 보프
3. 종교로서 자본주의 비판-발터 벤야민

III. 성정모의 3세대 해방신학

1. 시장
2. 욕구
3. 종교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6.03>

• ABSTRACT •

A Study for the Korean Church's Practical Ways of Faith in the Light
of the Third Generation Liberation Theology based on Dr. Jung Mo
Sung

Park, Do-woong(Bae-wha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ies the theology of Dr. Jung Mo Sung, a professor of Religion and Culture at the Methodist University of Sao Paulo, concentrating on his ethico-religious critique of the international capitalist systems. According to his insight against current global ideology, neo-liberalism, the modern altar of the 'global market god', is invisible, but still demands human sacrifices in the name of 'objective' desires. In this treat, first, this research figures out what the first generation liberation theology has done by Gustavo Gutierrez and the second generation by Leonardo Boff. This study finds some genealogical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liberation theology and Dr. Sung's third generation liberation theology. Dr. Sung, Gutierrez and Boff have accomplished great fruit in terms of spiritual practices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The liberation theology in Latin America and its discussions are still valid for the people in Asia and other areas those who are "the oppressed and maimed and blind and lame"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s. Likewise, the Korean church also needs to look for various ways of faith practice with true spirituality of liberation.

Key words: Liberation theology, Neo-liberalism, Jung Mo Sung, Gutierrez, Boff

I. 들어가는 말

오늘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신자유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망라하고, 정부와 비영리재단에서조차 이윤의 극대화와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담보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와 신학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자유경쟁과 무한경쟁,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물의 독점적 소유는 결코 성서의 가치가 아니다. 성서는 신구약을 관통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와 가치체제를 거부하고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편승하고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한 것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차가운 눈총을 받는 이유도 근원적으로 이러한 체제순응과 타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해방신학 3세대로 불리는 성정모의 신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이다.¹⁾ 본고는 성정모의

1) 해방신학 2세대의 유력한 대표자로 평가되는 성정모 교수(Dr. Sung Jung Mo)는 1965년, 7살 나이에 부모를 따라 브라질로 이민한 1.5세대 이민자이다. 해방신학의 본고장 브라질에서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그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톨릭과 개신교를 망라하여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 해방신학을 전파하고 있다. 상파울로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을 중퇴하고 신학을 전공하던 중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평신도 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그는 프란츠 힉켈라메르트와 우고 아스만에게 사사하고 해방신학 2세대와 함께 경제신학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학과 신학의 대화와 관련성 연구를 통하여 자본주의 문명과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성정모의 박사학위 논문은 해방신학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해방신학이었다. 이 논문으로 이미 주목을 받은 그는 현재 상파울루 감리교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고는 그의 주저 *Desire, Market and Religion*, (London, UK: SCM Press, 2007), 홍인식 역 『시장 종교 욕망』 (파주: 서해문집, 2014), *The Subject, Capitalism, and*

신학을 중심으로 최근 해방신학이 관심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와 방법론을 살피고자 한다. 성정모는 해방신학 2세대의 유력한 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은 3세대로 구별한다. 한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별하는 지점은 주객관성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지만 필자는 성정모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부당성과 비성서적 성격을 지적하는 성정모의 신학은 1세대 해방신학과 구별될 뿐 아니라 2세대로 분류되는 보프 등의 신학과도 구별되기 때문이다. 해방신학의 세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기 어렵지만 본인의 설명에 따라 3세대 해방신학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다.²⁾

성정모 박사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신학을 연구하는 해방신학자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3세대 해방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성정모의 신학을 살피고 그의 신학이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에 주는 교훈을 공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II. 1세대, 2세대 해방신학의 전개과정

해방신학은 남아메리카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탄생하였다. 극심한 정

Religion,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1, 미국 남감리교대학교(SMU) 리거(Joerg Rieger) 교수와 아르헨티나의 미게스(Nestor Miguez) 교수와 공저한 *Beyond the Spirit of Empire*, (Norwich, UK : SCM Press, 2009)를 기초로 성정모의 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 2) 2016년 6월 24일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신학선언과 함께 열린 강연, "Idolatry of Market, Guilt and Critical Theology of Reconciliation"에서 성정모는 구티에레즈와 보니노 등으로 대표되는 해방신학 1세대는 마르크스주의를 차용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사회를 분석하였고, 레오나르도 보프 형제 등으로 대표되는 2세대는 교회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1세대, 2세대 해방신학과 구별되는 3세대 해방신학자로 자신을 정의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큰 관심을 갖고 교회와 신학의 대응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평등, 외세의 정치개입과 수탈, 그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소위 1%의 특권층을 제외한 99%의 국민들이 실업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녀에게 적절한 식사와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들이었지만 낮은 교육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없었다, 그들을 향한 교회의 구체적인 관심과 응답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사회적 논의와 1967년 바오로 6세의 회칙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8년,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열린 제2차 남아메리카 주교회의는 이후 해방신학의 태동과 용기를 알리는 회의가 되었다 이 회의가 중요한 의제로 다룬 주제들, “가난한 자들과 정의”, “제도화된 폭력상황에서의 평화와 형제 사랑”, “역사의 통합성과 신앙의 정치적 차원”은 당시 남미 사회와 교회가 응답할 주요이슈였고, 해방신학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또한 유럽의 정치신학과 마르크스주의가 해방신학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성정모의 3세대 해방신학에 대한 계보학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1세대와 2세대 해방신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신학과 신자유주의 비판의 선구자 발터 벤야민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은 구티에레스와 레오나르도 보프, 그리고 유대계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이다.³⁾ 세 사람의 신학과 사상은 성정모의 경제신학적 해방신학, 혹은 해방신학적

3) 성정모 교수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연(2016.6.24.)에서 1세대와 2세대 해방신학의 대표적 인물로 두 사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정모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는 이 두 사람 외에 다양하다. 그 자신의 소개를 보면, 프란츠 힌켈라메르트(Franz Hinkelammert)와 우고 아스만(Hugo Assmann)이 대표적이고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 후안 루이스 세군도(Juan Luis Segundo), 르네 지라르(Rene Girard), 호세 콤블린(Jose Comblin) 등이 소개되고 있다. 그밖에 유대인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을 밝히고 있다. “시장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망으로”, 『기독교사상』 통권660호(2013.12), 168-169.

경제신학의 계보학적 토양이 되었다.

1. 신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세계 신학계에 해방신학의 등장을 처음 알린 사람은 페루의 신학자이며 도미니크회에 소속했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 1928-)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스페인어본과 1973년 영역본이 출판된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A Theology of Liberation*)은 해방신학의 등장을 알린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1977년, 한국어 번역본이 분도출판사에서 나오면서 이 땅에서도 해방신학의 대동이 알려졌다. 해방신학은 당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민주화운동, 해방운동의 기독교 신학적 근거가 되고, 많은 신앙인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 책에서 구티에레즈는 신학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해방신학의 필요성을 논구하고 있다. 즉, 예지, 혹은 합리적 지식으로서 이해되고 있던 신학을 신앙실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⁴⁾ 그동안 관념적, 사변적 신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러한 개념은 충격이었다. 신학을 실천(praxis)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구티에레즈는 라티아메리카에서 불고 있던 개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으로 보았다. 그는 개발 대신 해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면서 세 단계의 해방을 주장하였다.⁵⁾ 즉, 압제받는 대중과 사회계급의 염원을 표현하여 경제, 사회, 정치의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해방이 첫째 단계이고, 역사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기초로 변혁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해방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를 성서 안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단계가 그것이다.

4)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성님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7), 19~27.

5) 앞의 책, 58-59.

구티에레즈가 제시한 새로운 신학적 관점은 라틴아메리카 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권력과 자본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성서와 교회 이해를 가져왔다. 이들은 신학의 출발점이 사변과 관념이 아니라는 해방신학의 제안을 받아들여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성서와 교회 전통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실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또한 마르크스가 제시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서구신학이 철학을 주요한 도구로 사용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철학적 분석들은 필연적으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을 형성하게 하였지만 사회과학적 분석들은 현실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극복방안을 실천적으로 고민하게 하였다. 구티에레즈가 사용한 사회과학 방법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이른바 “종속이론”이었다.⁶⁾ 『해방신학』에서 “예속”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자본주의 세력과 제3세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예속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종속이론에 따르면 국제자본주의 체제 안에 속한 제3세계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까닭에 자율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지 않다. 때문에 제3세계 국가의 해방은 불공정한 종속적 관계를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구티에레즈는 억압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를 깨트리기 위하여 사회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고, 동시에 그러한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교회와 신학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비판하는 일에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는 기독교의 건전한 희망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혼동하지 않게 하는 근원이라고 간파하였다.

6) 앞의 책, 116-117.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역사적 단계를 하늘나라와 혼동하지 않게 방지하고, 인간이 성취한 어떤 결과를 놓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며, 어떤 혁명을 절대시하는 일이 없게 만든다. 우리는 해방을 주는 유토 피아에 이끌리고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서 얻어진 수단을 갖고서 사회 활동에 투신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 처지에서 투신할 수 있게 해준다.⁷⁾

구티에레즈는 라티아메리카의 억압적 현실을 보면서 억압과 복종을 강요하는 모든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종교적 이데올로기도 당연히 포함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구티에레즈는 신학의 고전적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발전한 서구신학이 라티아메리카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통주의와 보수주의 신학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자유주의 신학도 거부하였다. 서구신학에 대한 선별적 거부가 아닌 통전적 거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티에레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난의 문제를 볼 수 있다. 해방신학에서 가난은 여전히, 아니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 영원한 신학적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기하는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점에서 구티에레즈의 가난 이해를 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그는 가난의 문제를 성서를 통하여 다루었다. 즉, 신구약성서가 설명하는 가난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끄러운 가난과 정신적 순박을 드러내는 가난을 구별하였다.⁸⁾ 그리고 두 가지 가난을 종합하는 제3의 의미를 가진 가난을 제시

7) 앞의 책, 306.

8) 앞의 책, 367-376.

하였는데, 그것이 곧, “연대와 저항에 참여하는 가난”이다⁹⁾ 그것은 가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해방의 영성으로서의 가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난을 보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거나, 정신적인 순수함으로 미화되는 가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천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고 함께 가난에 저항하는 에너지로서의 가난이 되는 것이다.¹⁰⁾

2. 신학과 교회의 만남 - 레오나르도 보프

보프(Leonardo Boff, 1938-)는 1938년 12월14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주에서 태어나 브라질 페트로폴리스 등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34살 때 독일 뮌헨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조국에 돌아와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이 빈곤과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현실을 보면서 구티에레즈, 세군도 등과 함께 해방신학의 1세대 주자가 되었다. 1984년 발표한 『교회, 카리스마와 권력』이라는 책으로 인하여 바티칸으로 소환당한 보프는 지속적인 회유와 억압을 당한 끝에, 1992년 6월 28일, 사제직을 사임하고 프란시스코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사제 서품 후 28년 만의 일이다.

사제직을 사임하며 보프가 남긴 “해방 여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그동안 집요하게 진행된 바티칸의 방해공작을 폭로하였다. 그는 “교황청 당국이 자신의 신학적 작업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자신을 가톨릭 공식 신학 노선에 묶어 두기 위해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감시와 압력이 더욱 강화되어 이런 상황에서 신학 작업은커녕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고 ‘일치의 하나님’ 이미지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러 20년 동안 이어온 자신의 투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고백하였다.¹¹⁾ 그는 20년 동안

9) 앞의 책, 377-381.

10) 앞의 책, 379.

이어진 교황청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해방신학자로서의 투쟁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평신도의 위치로 이동한 것이었다.

성정모는 보프를 해방신학 2세대로 분류하면서 1세대와 달리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강조했다고 평가하였다. 성정모의 평가와 같이 보프는 삼위일체론을 위시하여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등의 전통신학이 다루었던 신학적 주제들을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저술하고 있다.¹²⁾ 필자는 성정모의 이러한 표현이 당연하지만 해방신학을 위시한 정치신학이 소홀히 여겼던 교의학을 비롯한 교회 전통과의 만남이라고 성격 짓고자 한다.

해방신학을 추구하던 사제 보프는 구티에레즈와 마찬가지로 실천으로서의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는 “신앙은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인간들의 다양한 실천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혹은 부재를 분간하게 해준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진정한 신앙이어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한 신앙이 절대로 필요하다.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은 해방시키는 행동을 실천해보임으로써 그 목소리를 따르도록 명령한다”¹³⁾고 말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후 교회론과 성령론에 반영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해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형제자매 공동체에 대한 복음적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초역사

11) 김항섭, “보프 사임과 중남미 해방신학의 앞날”, 『월간 말』, 1992.8월, 94.

12) 보프가 사제직 사임 후 발표한 저서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작품만 소개해도 다음과 같다. 『생태 신학』, 김항섭 옮김, 서울 : 가톨릭출판사, 1996. 『주의 기도 : 총체적 해방의 기도』, 이정희 옮김, 서울: 다산글방, 2000. 『삼위일체와 사회』, 이세형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성삼위일체 공동체』, 김영선, 김옥주 공역,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11.

13) 레오나르도 보프, 『해방신학 입문』, 김수복 역, (서울: 한마당, 1989), 75.

적 개념을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¹⁴⁾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구원의 성격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엄있게 하고, 자유, 정의, 사랑, 평화의 왕국 즉 인류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하는 유토피아를 가능케 하는 역사적 해방들에 의해 매개된다”¹⁵⁾는 설명이다.

교회의 전통과 신앙고백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보프의 노력은 삼위일체에 대한 해방신학적 서술에서 잘 나타난다. 2005년 발표한 *Trinity and Society* (NY: Orbis Books, 2005)에서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고 있다.¹⁶⁾ 삼위일체의 연합을 온전한 해방의 기초로 보면서, 모든 해방의 기원과 목표가 되는 “성부 하나님”, 온전한 해방의 중재자가 되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해방을 가져오는 동력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불평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 삼위일체 신앙은 모든 불의를 비판하고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감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¹⁷⁾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를 이해함에 있어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세 위격의 존재론적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했다. 보프는 세 위격의 관계에 기초한 신비적인 연합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개념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상호 침투(perichoresis), 상호 순환(circuminsession), 상호 내재(circuminsession), 공속(co-inherent),

14) Leonardo & Clodovis Boff, *Salvation and Liberation*, Claretian Publication, Queens City, Philippines, 1985. 111.

15) Leonardo Boff, *Introduction to Liberation Theology*,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89, 8-9.

16) 본고는 이세형 역, 『삼위일체와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를 텍스트로 삼았다.

17) Leonardo Boff, 이세형 역, 『삼위일체와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34.

상호 관통(interpenetration) 등이다.¹⁸⁾ 보프의 삼위일체 해석은 공동체와 연관되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오늘날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이유를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 창출의 결과로 보면서 이러한 체제에 반대편에 서는 해방적 관점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보는 것이다.

연합, 참여, 평등은 억압당하고 영구히 소외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부되기 때문에, 해방의 과정은 억압당한 사람들 자신들로부터 급히 시작되어야 한다. 억눌린 기독교인들은 해방의 영감을 자신들의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이 해방은 참여와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인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삼위일체 연합의 신비이다.¹⁹⁾

해방적 삼위일체 읽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삼위일체를 논리적 신비로 보는 것을 넘어 구원의 신비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 고통과 비극을 수용하는 실재와 접목되기 때문이다. 아들이 보여준 생명과 승리를 위한 희생과 죽음의 모습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해방의 길을 열어주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다.²⁰⁾ 그런 의미에서 보프는 “억눌린 신앙인들이 생명과 자유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투쟁으로 인식하게 될 때, 더욱 더 투쟁과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²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분이 된다. 그는 성육신한 성자의 역할을 통하여 인간 뿐 아니라 우주의

18) 앞의 책, 181.

19) 앞의 책, 219.

20) 앞의 책, 225.

21) 앞의 책, 226.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을 말하고 있다.

수욕이 영광보다 수치의 모습으로, 주인보다는 종의 모양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 아들은 세계의 고통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두운 길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생명, 자유, 화해,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듯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을 구원한다. 이 구원은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나라와 삼위일체 연합의 일부인 창조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²²⁾

교회사에서 성령의 위치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특별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갖는 존재론적 동질성과 다른 성격과 위격을 성령의 호칭과 역할 속에 발견했기 때문이다. 보프는 초대 교부들부터 시작하는 전통 신학이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한다.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이해하는 성령은 교부들이나 현대 여러 신학자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들의 고백을 기초로 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한다. 그는 경제적 삼위일체의 틀에서 성령의 활동을 살피고, 내재적 삼위일체의 빛에서 성령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방과 서방교회에서 발전한 삼위일체론을 해설하고, 오늘의 성령론을 논구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은 온전한 해방을 가져오는 동력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해방의 길과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피조세계와 함께 해방의 길로 나서도록 인도하는 힘이다.

성령은 활동을 통해 세상 속에서 활동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음을 인식할 때 가능한 것은 이들이 함께 힘을 규합하여 종속을 강요하였던 구조를 전복시키고 지금까지의 굴레를 벗고 억압하였던 이들을 향해 예언적

22) 앞의 책, 270.

인 저항을 할 수 있다. 힘을 갖게 된 이들은 억압자들의 폭력에 직면하고 억압자들의 특권과 불의한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 때 이들은 창조적 상상력이 가득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고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상을 꿈꾸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 여기 일하십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촉매자로 일하고 계십니다.”²³⁾

보프는 바티칸의 억압에 사제직을 던졌지만 그가 공언한 대로 더 넓은 신학의 바다에서 교회의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응답을 촉구하고 있다. 전통신학의 교리적 해석을 일정 수용하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해방신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이 생태신학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 또한 그 과정이 성정모의 경제신학의 토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종교로서 자본주의 비판-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상적, 비판적 근거를 제공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성정모는 자본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간파한 벤야민의 비판에 동의하면서 신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벤야민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라는 단편은 분량에 비할 수 없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을 근대 자본주의의 추동력으로 보았던 막스 베버의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가 자본주의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벤야민의 관점은 기독교의 자본주의화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대목에서 기독교 신학은 안도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기독교로 대변되는 종교의 영역을 침범한 자본주의에 대하

23) 앞의 책, 297.

여 기독교회와 신학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의 종교로서의 자본주의 비판은 이렇게 시작된다.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종교를 볼 수 있다. 즉, 자본주의는 예전에 이른바 종교들이 그 답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걱정, 고통, 불안을 잠재우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²⁴⁾

이어서 벤야민은 자본주의의 종교적 구조에서 네 가지 특성을 언급한다.²⁵⁾ 첫째로, 자본주의는 순수한 제의종교로서, 어쩌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극단적인 제의종교라고 선언하였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제의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정한 교리도 신화도 모르고, 제의의 구체적 성격과 연관되는 두 번째 특성은 제의의 영원한 지속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꿈(희망)도 자비도 없는 제의를 거행한다고 보았다. 그 속에는 ‘평일’이 없고, 모든 성스러운 치장의 의미, 경배하는 자의 극도의 긴장이 펼쳐지는 끔찍한 의미에서 매일이 축제일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이 제의가 부채를 지운다는 것이다. 벤야민은 자본주의가 죄를 씻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우는 제의의 첫 케이스라고 표현하였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는 엄청난 운동의 추락 과정 속에 있으며 죄를 씻을 줄 모르는 엄청난 죄의식은 죄를 보편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네 번째 특성은, 그 신이 숨어있다는 점이다. 벤야민은 그 신이 지은 죄의 정점에서 비로소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백 년 전에 자본주의의 특성을 종교적으로 비판한 벤야민의 통찰

24) Walter Benjamin,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서울: 도서출판 길, 2008), 121-122.

25) 앞의 책, 122-123.

이 놀랍다. 성정모 신학도 벤야민의 자본주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벤야민은 결론적으로 종교로서의 자본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자본주의는 순전히 제의로만 이루어진, 교리도 없는 종교이다. 자본주의는—칼뱅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통 기독교 교파들에서도 입증되어야 할 테지만—서구에서 기독교에 기생하여, 중국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의 기생충인 자본주의의 역사가 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²⁶⁾

발터 벤야민의 자본주의 비판은 성정모 신학의 토양이 되어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는 해방신학의 기초가 되었다. 짧은 생애를 살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철학자가 이미 지난 세기 초에 제기한 자본주의의 종교적 속성은 우상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교회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명료하게 알려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성정모의 3세대 해방신학

기본적으로 성정모의 신학을 규정하는 틀은 신학과 경제학의 만남이다. 경제학과 신학의 만남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는 3세대 해방신학을 연구하는 성정모는 신학과 경제학의 만남에 모순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즉,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받는 위협을 이겨내기 위하여 경제학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경제학이 대다수 현대인들에게

26) 앞의 책, 124.

27) 성정모, 홍인식 역, 『시장 종교 욕망』, (과주: 서해문집, 2014), 24-25. 성정모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은 단순히 경제활동에 관한 학문으로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보다 많은 영역들에 대한 서술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제학 역시 다른 학문과

있어서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찌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다. 경제학과 신학의 만남은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국제질서로 자리잡은 21세기에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30년 전부터 경제신학적 관점에서 해방신학을 연구하는 성정모의 신학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 안팎으로 밀려오는 물신숭배의 거친 파도에 맞서고 있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준다. 성정모 신학의 중심주제인 시장과 종교, 그리고 욕망을 살펴보자.

1. 시장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정모 신학의 출발이며 극복 대상으로 작동하는 체제가 바로 완전한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라 하면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도입한 경제정책을 말하지만, 그 뿌리는 1940년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로 거슬러 올라간다.²⁸⁾ 하이에크는 현실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고발하면서 그 대안으로 완전한 시장경제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일정한 철학적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즉, 경제학에는 철학이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윤리학과 신학적 가정도 들어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과 이론은 입증되지 않은 어떤 전제로부터 형성되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 그 전제가 신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28)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1991년, 미국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상하였다.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두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불균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오차를 줄여가며 결국 완전한 균형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면적 시장경제를 제안한 것이다.²⁹⁾ 그러나 완전경쟁을 통한 완전균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문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같은 논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함께 노조의 힘을 부정하거나 약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한 사회의 모든 것이 시장경제로 통한다고 주장하는 시장경제적 절대주의를 해방신학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성정모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경제와 사회 체제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악마적 체제라고 보았다. 성정모는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고난당하며 끝없는 빈곤의 굴레로 몰리는 민중들의 삶을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끝없는 경쟁으로 빈부격차를 벌려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빈부격차를 바라보며 교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62명의 슈퍼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양이 중하위층 35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같은 양이라고 고발한다. 즉, 1%의 부자들이 99%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³⁰⁾

29) 김항섭, “신자유주의 유토피아 비판”,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융합연구원 학술연구총서 001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서울: 생각의나무, 2002), 429-431.

30) 성정모, “Idolatry of Market, Guilt and Critical Theology of Reconciliation” (2016. 6. 24, 감리교신학대학교 국제회의실) 강연 중에서. 같은 강연에서 성정모는 발터 벤야민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벤야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정모는 현대의 물신숭배적 경제이론과 실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판단을 다루는 경제윤리신학이나 기존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경제의 신학(theology of economics)과 구별되는 작업을 하고 있다.³¹⁾ 성정모는 시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하이에크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의도를 비판한다.

그들(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역주)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사회운동가들의 시장체제에 대한 모든 간섭과 이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의 ‘알고자 하는 시도’이다. 하이에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의하면,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그들의 상관성에 대한 완전 무결한 지식 소유의 불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의식적인 해결 모색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정하고 있다. ... 그들은 시장에 대한 모든 제재나 간섭은 효율성 감소라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³²⁾

동시에 성정모는 근대 자유주의 이념을 이끌어온 두 개의 기둥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은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배타적으로 논리로 작용하였고,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보편적 인권, 그리고 포용의 논리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원리는 자유경제를 지지하는 정치이념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체제라고 비판하였다.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역할은 교회가 아닌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류하고,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적 선을 뒤집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도덕을 요구한다는 것이 성정모의 주장이다.

31) 김항섭, “경제신학”, 김용복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민중의 사회전기와 기독교의 미래』,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67.

32) 성정모, 『시장 종교 욕망』, 120.

정에서 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제압하는 절대적인 권능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종교성까지 담보하는 괴물이 되었다.

경쟁과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는 모든 체제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조건으로 승화되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인간의 제도와 시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을 포기해야 하며, 이제 시장은 초인간적이고 절대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시장은 우상이 되었다. 종교의 도구적 사용은 그 논리 자체로 자신의 거짓성과 타락성을 드러내고 있다.³³⁾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시장은 우상이 되었다. 성정모 신학에 큰 영향을 준 우고 아스만도 1980년대 말, 시장의 우상화를 경계하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언급하면서, 첫째로, 인간 생명의 희생에 대한 요구와 둘째, 시장 메커니즘의 자가 조절 능력을 제시한 바 있다.³⁴⁾ 아스만은 시장의 자가 조절 능력을 인정하면서, 그 시장의 독점적인 모습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았다. 즉,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시장의 우상화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다. 아스만과 성정모는 시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리하게 보고 있다. 성정모는 해방신학의 관점에서 시장의 우상화를 비판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윤리학과 경제학의 범주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의 몇 안 되는 사고들 중 하나이다. 오늘날 “구조악” 혹은 “제도적 죄”라는 주제는 해방신학이나 남아메리카신학의 범주를 넘어서 기독교 일반, 혹은 종교 일반의 영역으

33) 앞의 책, 160.

34) 앞의 책, 188-189.

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의 우상화라는 개념에는 윤리적인 측면보다 신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만 이는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제체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해방신학의 전통과 같은 것이다.³⁵⁾

이처럼 성정모의 신학에서 시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주제이다. 시장 자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인간 사회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신학 역시 그 체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성정모의 주장이다. 급기야 그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모든 신학은 어느 신학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이론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³⁶⁾ 그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신학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신학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신학으로 구별한다. 신자유주의 신학은 왕과 가난한 자의 연대라는 논리로 자본과 가난한 형제들의 동질성과 연대를 합리화한다. 성정모는 자본과 가난한 자의 연대는 불가능하며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서는 해방신학은 시장의 우상화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며 예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서 선교과제를 재천명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³⁷⁾

2. 욕구

신자유주의 경제의 기초로서 시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인은 소비자

35) Jung Mo Sung, *The Subject, Capitalism, and Religion*,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1), 109.

36) 성정모, 『시장 종교 욕망』, 38.

37) 앞의 책, 160. 이 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천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즉,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이기에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분,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제도라도 동일시함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라고 밝히고 있다.

들의 욕구이다. 때문에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과 기업 활동은 소비자의 욕구 만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욕구는 때때로 필요와 혼동된다. 필요는 있어야 할 것, 없으면 불편하거나 곤란한 것이지만, 욕구는 다른 차원이다. 욕구는 필요와 별개로 취향이나 선호에 따른 감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유발하는 소비 동기는 필요라기보다 욕구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무한한 필요와 대비되는 유한한 자원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긴다. 그 때문에 성정모는 “필요가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욕구가 무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⁸⁾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하이에크는 사람들의 욕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모방이라고 보았다. 그는 지식이나 상품의 경우,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초기에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을 보며 모방하려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부 혹은 새로운 상품이 대중적 필수품이 되거나 생활에서 필요한 한 부분으로 형성되기 전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선택된 자들만의 욕망을 이룬다. 오늘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 된다. 더욱이 일정 기간 동안 소수의 사치품이었던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부는 대다수 사람들의 자산으로 변하게 된다.³⁹⁾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두 가지 특징은 시장중심성과 보수주의이다.⁴⁰⁾ 즉,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경제

38) 앞의 책, 60.

39)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42.

40) 김 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9), 88-89.

를 움직여가야 한다는 것과, 승자와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로서 보수주의와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성정모의 견해에 따르면, 하이에크는 모방의 욕구를 발전의 원동력이며 진보의 촉진제로 보고 있다. 모방욕구의 기본적 구조는 한 개인이 물건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으로부터 요구된 물건은 욕구의 물건으로 둔갑하기 때문에 욕구에 비례하여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 성정모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에서 발생하는 라이벌 의식과 분쟁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지만 그것은 연대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⁴¹⁾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분배의 양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을 다독여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경쟁과 무한이익 추구의 현실은 분배의 양을 늘리기보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 또한 근대 이전 사회에서 억압되고 금기시되었던 욕구의 표현이 자유롭게 되면서 오히려 자극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불행이 욕구를 억압하는 모든 장치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⁴²⁾ 여기에는 종교적 금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욕구를 표출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근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경쟁, 비교 가운데 개인이 느끼는 절망감의 강도이다. 성정모는 그러한 좌절감을 죄책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기를 지킴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다시 말하면 자신을 모방 욕구의 동일한 논리적 관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41) 성정모, 『시장 종교 욕망』, 67.

42) 앞의 책, 73.

없게 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느끼는 좌절감이 이제는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좌절한 개인(자본주의 사회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사회가 받아들인 발전 모델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⁴³⁾

성정모는 욕구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느끼는 절망감의 종교적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으로 느끼는 것이다. 실패의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 죄악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보라.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리는 교회와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교인을 많이 모은 교회는 성공한 교회와 목회자로 인정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정모의 설명을 들어보자.

과거에는 무한한 욕망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으나 오늘에는 물질에서 찾는다. 우리의 욕망을 찾아주는 수단으로 돈을 구한다. 만일 돈이 나의 욕망이라면 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는 교회였지만 오늘은 상점이다. ... 현대인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또한 부자라 할 쯤이라도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정서이다.⁴⁴⁾

43) 앞의 책.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욕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부자들까지 죄책감에 빠지게 한다. 과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대정신은 모든 사람이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이러한 믿음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천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는 오직 계약에 따라 보장될 뿐이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적 선을 뒤집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도덕을 요구한다. 이 도덕은 부자를 선으로, 가난을 악으로 규정하는 도덕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편드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역시 악이다. 부자들은 부자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원리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덕을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느덧 교회 안에도 이러한 도덕적 기준이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정모는 심각하게 묻고 있다. 이러한 도덕은 결코 성서적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그에 기초한 프로그램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성정모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요청하는 종교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3. 종교

신학자로서 성정모의 고뇌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 시장의 우상화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메카니즘에 따라 필요가 아닌 욕구에 따라 소유하고 소비하며 그에 따른 죄책감을 안고 사는

44) 성정모, "Idolatry of Market, Guilt and Critical Theology of Reconciliation" (2016.6.24.) 강연.

사람들에게 교회와 신학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성정모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먼저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3세대 해방신학자의 성과를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성정모는 시장의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구원과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이상화된 시장경제 체계 안에서 기독교회의 선교가 가져야 할 모습을 고민하고 있다. 그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몇 가지 생각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는 “시장에 대한 비판”과 “시장의 신성화와 절대화에 대한 비판”을 구별할 것을 요청한다. 기독교 신학이 비판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법칙의 신성화라는 것이다.⁴⁵⁾ 그는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상업적인 관계를 배제한 경제체제를 상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안에서 기독교 신학은 부의 축적과 한없는 소비를 조장하며 인간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고 신격화되어 있는 모든 사회, 인간관계와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이상숭배 정신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⁴⁶⁾ 그러한 책임을 위하여 성정모는 교회가 “부의 축적을 목표로 삼는 경제”와 “가난을 극복하고 모든 인간들의 유익하고 존엄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경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⁷⁾ 이 대목에서 성정모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함께 정당한 선교적 사명을 주장하고 있다.

(번영의 신학에) 대항하여 우리는 은혜의 신학을 명확히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고통과 불의 뒤에 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 소수의 부의 제공자로

45) 성정모, 『시장 종교 욕망』, 121.

46) 앞의 책, 122.

47) 앞의 책, 123.

게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냉소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⁴⁸⁾

성정모 신학이 경제학과 대화를 통한 현실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질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성토했는데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해방신학 1세대와 2세대의 토양에 신학적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성취한 신적 권위(실제로는 우상으로 불려야 하는)를 고발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까지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성을 넘어서는 두 가지 신앙체험을 소개하면서 해방신학의 영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노숙자들, 창녀들, 빈민들과 평생 함께 했던 네누카라는 수녀의 체험이다.⁴⁹⁾ 그녀의 체험을 소개하면서 성정모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다. 하나님은 죽었는가? 라는 물음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물음이면서 실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길거리,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한다. 여기서 정체성은 그녀들, 즉 작은 수녀회의 수녀들이 누구인지를 의미하지 않고, 또한 그리고 어쩌면 무엇보다도 그녀들의 사람의 의미일 것이다.⁵⁰⁾

48) 앞의 책, 124.

49) 성정모, “진정 신은 죽었는가? -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실천과 희망에 관한 성찰”, 김항섭 역, 한신인문학연구소 편, 『종교문화연구』 제12호(2009), 96-102.

50) 앞의 책, 100.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성정모와 해방신학 뿐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방식이 정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경제체제에 대한 고발에 멈추지 않고 교회의 대안적인 영성을 제시하는 성정모의 해방신학은 단순히 현실참여적인 신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작업이다. 그는 오늘날 경제적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기독교회가 지향해야 할 열 세 가지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1) 해방의 영성. 2) 정의와 평화의 영성. 3) 은혜의 영성. 4) 동정과 자비의 영성. 5) 이웃의 영성. 6) 연대와 공동체의 영성. 7) 생명의 영성. 8) 약함의 영성. 9) 충돌과 예언적 비판의 영성. 10) 비양립성의 영성. 11) 친절과 받아들임의 영성. 12) 꿈의 영성. 13) 멈춤의 영성이다.⁵¹⁾

성정모가 제시한 열 세 가지 영성은 모두 중요한 대안이지만 필자는 여덟 번째, 독재적 권력을 향한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약함의 영성”과 마지막에 제시한 “멈춤의 영성”을 인상적으로 읽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무한경쟁과 무한성장, 무한 자유를 지향한다. 모두가 그러한 달려가는 세상에서 약함과 멈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용기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정모 신학의 신앙적 깊이와 실천적 지평을 인정할 수 있다.

IV. 나가는 말

오늘날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아니다. 자유라는 말이 가진 이상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51) 성정모, 『시장 종교 욕망』, 264-279. 각 제목마다 성정모의 해설이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담긴 자유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많은 부를 소유한 일부 계층의 자유를 대변한다. 고전적으로 그들을 부르던 명칭은 부르주아였다. 그들의 자유를 통하여 구축되고 다시 그들의 부와 자유를 확대재생산하는 힘은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자본이 “돈을 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와 정책을 철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⁵²⁾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전도사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선전문구가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이다. 항아리에 물이 넘치면 밖으로 흐르는 것처럼, 기업에서 가계로, 상류층에서 중류층과 하류층으로 소득이 이전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IMF 이후 경험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이윤은 결코 가계와 서민들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낙수효과에 대하여 이렇게 일갈하였다.

낙수 효과는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다준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 대기업이란 술을 부으면 부을수록 커져만 가는 술잔이다.⁵³⁾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황의 통찰과 비판이 날카롭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하고 적응하여 교회의 과시적 성장과 성과에 관심하기보다 교인들인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현재적 삶의 질과 상황이 어떠한지 심각하게 관찰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성정모의 3세대 해방신학에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미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신학

52) 박민영, 「신자유주의 : 대중의 정신을 지배하는 최고 부자들의 이데올로기」, 『독서평설』 통권303호 (2016년 6월) 88-90.

53) 앞의 책, 91.

적 비판과 대안은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⁵⁴⁾ 필자는 그러한 성과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들이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실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첫 번째, 이미 제시된 성과들을 기초로 신자유주의 질서와 방향이 비성서적이고 비신앙적이라는 사실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목회와 예배는 여전히 설교중심이다. 설교가 교인들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설교를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경우 신자유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과 거부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이야기와 주제를 통하여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나 경제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쟁이나 사적 이윤의 추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이웃과 연대하고 나누는 삶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포는 이미 강단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서연구이다. 성경공부라 칭해도 좋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성서를 읽는 것이다. “거룩한” 술어를 앞에 붙여 신자유주의적 욕망을 부채질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서 거룩한 성공, 거룩한 욕

54) 중요한 성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화경, 「기독교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호 (2012), 385-428.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9), 양명수,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52호 (2008), 56-66. 유호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테연구』 16호 (2009), 123-140. 장운재,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시대와 민중신학』 8(2004), 235-268, 「광야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49(2005), 50-57.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2011.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사상』 45(2001), 87-102. 등이 있다.

심, 거룩한 부자는 성서가 권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다. 성서가 말하는 가장 극적인 비움과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성정모가 제시한 것처럼, 성서읽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물 모델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고백과 결심을 할 수 있다. 해방신학이 3세대에 거쳐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들의 눈으로 성서읽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서 읽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비성서적 성격을 전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세 번째, 경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초청 강연이나 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목회자나 교인이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명도가 있거나 쉽고 명료하게 이러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시는 것이다.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초청하는 유익한 강연회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교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나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실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물론 거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빈민들이나 노숙자, 독거노인들이나 소년 소년가장들을 지원하는 일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장을 단순한 구제나 봉사의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발생원인을 나누고 연대하는 차원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현장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사고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시장은 신이 되었다. 물질과 권력은 자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영역에서 악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다. 교회는 이제 이러한 불의와 맞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작은 실천 하나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김항섭.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서울: 생각의나무, 2002.
- _____. “보프 사임과 중남미 해방신학의 앞날”, 『월간 말』. 1992년 8월호. 94-97.
- _____. “신자유주의 유토피아 비판”,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 학술연구
총서. 001. 『21세기 사회와 종교 그리고 유토피아』. 서울: 생각의나무. 2002.
429-431.
- _____. “경제신학”, 김용복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민중의 사회전기
와 기독교의 미래』,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 박민영. “신자유주의: 대중의 정신을 지배하는 최고 부자들의 이데올로기”, 『독서
평설』 통권303호(2016). 88-96.
- 박화경. “기독교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제35호(2012).
385-428.
- 성경모. *Desire, Market and Religion*. London, UK: SCM Press, 2007. 홍인식
역. 『시장 종교 욕망』. 과주: 서해문집, 2014.
- _____. *The Subject, Capitalism, and Religion*.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1.
- _____. *Beyond the Spirit of Empire*, Norwich, UK : SCM Press, 2009.
- _____. “세계화된 세계에서 복음 선포와 민족 문화”, 『신학연구』 제40호(1997).
159-174.
- _____. “시장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망으로”, 『기독교사상』 통권
660호(2013), 168-169.
- _____. “진정 신은 죽었는가? -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실천과 희망에 관한 성찰”, 김
항섭 역, 한신인문학연구소 편, 『종교문화연구』 제12호(2009), 85-108.
-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1999.
- 양명수. “자본주의 윤리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52호(2008), 56-66.
- 유호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태연구』
제16호(2009), 123-140.
- 장윤재. “경제 세계화와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시대와 민중신학』

- 제8호(2004). 235-268.
- _____. “광야로 돌아가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들”, 『기독교사상』 제49호(2005). 50-57.
-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2011.
- 채수일.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응: 돈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기독교사상』 제45호(2001). 87-102.
- Benjamin, Walter,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Boff, Leonardo. 『삼위일체와 사회』, 이세형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_____. 『생태 신학』, 김향섭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6.
- _____. 『삼위일체와 사회』, 이세형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_____. *Introduction to Liberation Theology*. Orbis Books, Maryknoll, New York, 1989.
- Boff, Leonardo & Clodovis. *Salvation and Liberation*, Claretian Publication, Queens City, Philippines, 1985.
- Gutierrez, Gustavo, 『해방신학』. 성님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7.
- Hayek, F. A.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6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국 문 초 록 •

본고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교회와 신학이 가져야 할 신학적 입장을 생각하고자 한다. 자유경쟁과 무한경쟁, 그리고 독점적 소유는 결코 성서의 가치가 아니라고 할 때 교회는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와 가치 체제를 거부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승하고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고는 교회와 신학의 책임과 실천적 응답을 위하여 해방신학 3세대로 불리는 성정모의 신학을 고찰한다. 성정모 신학에 기초하여 최근 해방신학이 관심하는 신학적 뿌리와 주제들을 살피고자 한다. 성정모는 해방신학 2세대의 유력한 학자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본인은 3세대로 구별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부당성과 비성서적 성격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성정모의 신학은 1세대, 2세대 해방신학과 구별되기 때문에 본고는 그를 3세대 해방신학자로 분류하여 그의 신학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과 도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1세대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와 2세대 해방신학자 보프, 그리고 자본주의의 종교적 특성을 일찍이 간파한 발터 벤야민의 사상을 계보학적인 토양으로 고찰하였다. 그 바탕 위에서 성정모의 신학을 살피면서, 그의 주저 『시장 종교 욕구』의 주제들을 고찰하였다. 그의 신학에서 시장이 갖는 위치와 의미, 욕구가 갖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중요성, 그리고 종교로 상징되는 교회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방안을 살피고 한국교회의 실천적인 응답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해방신학, 신자유주의, 성정모, 구티에레즈, 보프
